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418

2008年 2月
碩士學位論文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劉 涵 涵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류 함 함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Process of Hangeul Novel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류 함 함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金 樹 中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劉　　涵　　涵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1.2 연구사 개요 4

제 2 장 한글의 창제와 문학적 기능성 7

2.1 한글 창제의 문학사적 의의 7

2.2 한글로 표기된 문학작품의 형성과 기능 11

2.3 한글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 16

제 3 장 소설의 성립과 한글번역소설의 등장 20

3.1 소설 장르의 발생 20

3.2 한글번역소설 <설공찬전>의 출현과 의의 25

제 4 장 불교적 변문들의 발전 33

4.1 불교 변문의 소설적 성격 33

4.2 <안락국태자전><선우태자전><금우태자전>의 소설화 …… 37

제 5 장 <홍길동전>의 출현 …… 46

5.1 한글본 <홍길동전>의 가치 …… 46

5.2 본격적 한글소설로서의 위상 정립 …… 49

5.3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 역할로서의 위상 …… 51

제 6 장 결 론 …… 56

【참고문헌】 …… 59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Process of Hangeul Novel

Liu Han-Han

Advisor: Prof. Kim Su-Jung. Ph.D.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thesis focuses on the main narrative literature works produced between the creation of Korean Script and the appearance of the first Hangeul novel, studying and analyzing the formation of the Hangeul novels. Speaking of Korean literature, the creation of Korean Script is regarded as its real beginning. The significance of Hangeul novel study lies more in the fact that it helps a correct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an in it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hinese novels. However, it is a pity that it is treated only as a branch of Chinese novels by most of the scholars in this field. And theses considering Hangeul novels as an independent subject and analyzing systematically its formation are seldom found. The "Hangeul novel" as mentioned above must have two qualifications: First, it was written in Hangeul when it was created. Second, it must be a work of pure creation. That is no doubt that novels both in Hangeul and Chinese are part of the Korean literature. But languages,

themes, constructions, forms, styles and readers are quite different between the traditional Chinese novels and the Hangeul novels.

In the academic circle, in the argument on which is on earth the first Hangeul novel, works of Buddhistical literature like <Seolgongchanjeon> and Price of <Anrakguktaejajeon> have aroused concern and dispute on a large scale. Despite that, <Honggildongjeon> position as the first Hangeul novel is till unshakable. But it deserves people's attention and it is certain that the period of more than 170 years from the creation of Hangeul Script to the appearance of <Honggildongjeon> is not a blank vacuum period with no gravity at all. As time goes by, it is impossible for a complete novel created in Hangeul to come out suddenly some day. For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Hangeul novel, though the period of over 170 years is called a blank one, it is within this period that the following three aspects incorporated organically, that is, the awareness of the value of the literature forms that met the requirements of different times, the gradually mature literature feature under many conditions, as well as the written form of characters that can correctly and freely express the thoughts and feelings Korean people. Due to their features of "fun of novels" and "being easy to create and understand", works like <Seolgongchanjeon> and works of Buddhistical literature have attracted readers like townspeople and plebeians, whose increasing demands for Hangeul novels, together with the expansions of readers and the leading readers' changed attitudes towards Hangeul novels, made the appearance of <Honggildongjeon>, a Hangeul novel in real sense, possible.

Therefore, a deduction about the family tree of the Hangeul novel can be made: The Hangeul novel started in the 15th century when Hangeul Script

was created. Then followed the next period when <Seolgongchanjeon> and works of Buddhistical literature showed their unique charm of "novels" and "Hangeul", which made scholar-bureaucrats gradually change their literature attitudes in the 16th century. And then appeared the masterpiece <Honggildongjeon> in the 17th century which was distinguished on the stage of Korean literature.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고는 최초의 한글소설이라 불리는 <홍길동전(洪吉童傳)>이 발생하기까지 한글소설의 전반적인 발생 과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다. 즉 '한글소설'이 발생하기까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행작업으로 '한글소설'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지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글소설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학계에서 '한글소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그 중 한글소설은 창작 당시 '한글로 표기한 소설', 즉 원본이 한글로 쓰인 소설을 말하는 것으로 한문소설과는 구별되는 작품을 통칭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글소설은 세종 28년인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의 문학으로 범위를 좁혀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은 한국문화 제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주요한 동력이다. 특히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훈민정음 창제는 지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훈민정음을 통해 한국의 문학사는 그간의 문학사와 인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문학사가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반포 이전 표기 수단으로 사용됐던 한문은 표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로 사용하기에 자유스럽지 못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한국 국민의 문자로, 자유로운 표기 수단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국문학의 막이 올라갔다. 특히 훈민정음을 표현수단으로 익힌 민중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한국문학은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훈민정음 보급에 따른 문학의 변화가 빠른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리는 태풍의 눈이라기보다는 미미하고 느릿한 순풍의 걸음으로 문학의 역사는 서서히 변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한글소설이라는 <홍길동전>이 출현하기까지는 훈민정음 창제 후 약 170년의 공백기를 사이에 두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물론 <홍길동전>이 창작되기 전까지 한글 관련 문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 포교용으로 전하는 변문(變文)들이 이미 지어졌고 이들은 후대에 소설로 발전했으니 한글소설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최초의 한글소설 논란을 빚기도 했던 <설공찬전(薛公瓚傳)>도 한국문학사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한글소설의 형성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표기체계로서 '한글'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글로 쓰여진 '한글소설'을 범주로 한다. 이때 '한글'은 특히 '한문'과 대별되는 한국인의 독자적인 표기체계로서의 한글의 의미이고, 본격적인 한국문학의 시작으로서 '한글'이며 원본이 '한글'로 쓰여진 작품만을 범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한글의 창제와 문학적 기능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는 한글의 문학적 기능성들이 다음 장에 나오는 소설의 성립과 한글소설의 등장, 그리고 불교적 변문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소설의 성립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최초의 한글소설 논란을 빚은 <설공찬전>의 제반 문제들을 언급하고 구명해 볼 것이다. 이는 <설공찬전>이 최초의 한글소설이냐에 대한 논란의 답을 찾는 과정이자 <설공찬전>이 시사하는 문학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것으로 <설공찬전>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비중이 비중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불교적 변문들의 발전과 <홍길동전>의 출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홍길동전>이 출현할 때까지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을 제시하겠다.

제언하면 본 논문은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민족 문자로서 세종 28년 창제된 훈민정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표기체계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는지, 또 그로 인해 한국의 문학사, 특히 한글소설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국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인 국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올곧은 국민

문학은 존재하지도 성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민족문자로서 쓴 작품을 벗어나면 그 나라의 정신과 감정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일환인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한국문학사를 이해하고자 함에 의의를 둠을 밝힌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글의 창제와 문학적 기능성을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2.1에서는 한글 창제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후 2.2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문학 작품의 형성과 기능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 2.3에서는 한글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 등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소설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장이다. 3.1에서는 소설 장르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3.2에서는 한글번역소설 <설공찬전>의 출현과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제4장에서는 불교적 변문들의 발전 과정을 조망하는 장으로 4.1에서는 불교문헌의 소설적 성격을, 4.2에서는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 <선우태자전(善友太子傳)>, <금우태자전(金牛太子傳)>의 소설화에 대해 논해 보겠다.

제5장에서는 <홍길동전>의 출현에 대한 전반적인 면모를 고찰해 보겠다. 5.1에서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문학에서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으로 전환하는 전초적인 작품으로서 한글소설의 효시가 된 작품인 한글본 <홍길동전>의 가치, 5.2에서는 한국을 무대로 삼고 있으며 한글로 표기하여 서민들에게까지 독자층을 확대시킨 점에서 한글소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한국소설사의 진정한 시작의 장을 열었던 <홍길동전>의 한글소설로서의 위상 정립에 대해, 5.3에서는 민중을 역사 속으로 끌어안으며 시대적 함의를 가진 <홍길동전>이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역할로서의 위상에 대해 차례로 조망해 볼 것이다.

제6장은 결론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겠다.

1.2 연구사 개요

지금까지 한글소설과 관련된 논의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한글소설을 대중화로 이끌어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출판과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다룬 김동욱[1], 국문소설의 범주로서 중요시 다뤄지는 문체와 구성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김병국[2], 당대 문학의 장르 중 하나로 국문소설이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살핀 인권환[3], 국문소설에 대한 당대 유학자들의 시각과 비평의식을 담은 이문규[4], 국문소설의 형성 초기의 모습을 불교 변문들에서 찾고, 불교 변문들이 갖는 소설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든 사재동[5], 국문소설의 형성시대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서지사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왕랑반혼전(王郞返魂傳)>,<홍길동전>, <숙향전(淑香傳)> 등의 작품을 내세워 최초의 국문소설로 상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조희웅[6]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 논문들 중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뤄진 논문들은 최초의 한글소설을 <홍길동전>으로 규정화하고, <홍길동전>을 비롯해 이후의 작품들에 대한 작품성, 유통 경로, 독자층과 작자 층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이유로는 우선 '소설'이라는 범주를 이야기할 때 '한문소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한국문학사의 독특한 특징일 수도 있고, 한글소설이 한문소설의 연장선상의 한 지류라는 문학사적 전개 양상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다. 또 한글소설이라 하더라도 창작 초기부터 원본으로 쓰인 한글소설의 발달은 17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 있었던 한글본은 원본이 한문본이고 주로 번역본 또는 이본이 한글이어서

---

1) 김동욱,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2) 김병국, 「국문소설의 문체와 구성」,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3) 인권환, 「국문소설의 사회의식」,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4) 이문규, 「국문소설에 대한 유학자의 비판의식」, 『한국학보』31, 일지사, 1983.
5) 사재동, 「국문소설의 형성문제」, 『한국고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3.
사재동,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6) 조희웅, 「국문본 고전소설의 형성시대」, 『이야기문학 모꼬지』, 도서출판 박이정, 1995.

순수 한글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최초의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라는 학설이 확고해 한글소설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이견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한글소설'의 개념 역시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 '한글로 씌어진 소설'이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인식돼 왔고, '한글로 쓰여 졌다'는 데에 인식의 무게를 두었지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규범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소설'이란 용어는 '한글로 창작된 소설'을 주로 지칭하면서, '한글로 표기된 소설'을 지칭하기도 해 명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소 편의적인 사용으로 '한글소설'에 대한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국문본 <설공찬전>이 학계에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지속되었다.

<홍길동전>보다 먼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한글본 <설공찬전>이 발견되어,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그간의 정설이 흔들리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한글소설의 자격을 놓고 <홍길동전>과 <설공찬전>의 공방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사재동[7], 소인호[8], 오춘택[9], 이복규[10], 조희웅[11]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설공찬전> 국문본이 번역본임이 알려졌다. 학계는 다시 '한문소설의 한글번역본을 한글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두고 한글소설에 대한 명확한 범주 및 정의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수[12]의 논문은 명쾌한 답변을 던져주는데, 그는

---

7) 사재동, 「설공찬전의 몇 가지 문제」,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8) 소인호,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 37,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9) 오춘택, 「조선전기의 소설의식」, 『어문논집』 23, 고려대학교 출판부,1982.
10) 이복규, 『설공찬전』, 시인사, 1997.
_____ , 『초기 국문·국문본 소설』, 도서출판 박이정, 1998.
_____ , 「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이복규는 이 논문을 통해 최초의 국문소설에 대해 기존의 <홍길동전>을 뒤엎고 <왕시봉전>을 최초라고 하였다.
11)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어문논총』 1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12) 이원수, 「한글소설의 개념과 최초의 한글소설」, 2002.

논문을 통해 '한글소설'이란 '한글로 창작된 소설'로서, 창작 초기 작가가 이야기를 표현하는 표기 수단 자체가 '한글'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한글로 표기한 소설'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보다 구체화된 의미로 범주화될 수 있다. 따라서 채수의 <설공찬전>은 원본이 한문본이어서 명확하게는 한글소설의 범주에 들 수 없고, 최초의 한글소설은 <홍길동전>이라는 정설이 재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소설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 역시 여전하다.[13] 그럼에도 확고하게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라는 설이 아직까지는 개진돼 있지 않고 있어 <홍길동전>은 여전히 최초의 한글소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재동은 『월인석보(月印釋譜)』에 실린 <안락국태자전>, <목련전(目連傳)>, <선우태자전>을[14], 황패강은 보우가 16세기에 국문으로 번역한 <왕랑반혼전>을[15] 각각 '형성기 국문소설', '최고 국문소설'로 규정하기도 하였다.[16] 그러나 이들 작품이 본격적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번역본들로서, 본격적인 소설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한글소설'의 정의와 범주의 규정, 최초의 한글소설에 대한 학계의 논란은 과거로부터 소급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란의 복판에 서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을 재확인해 보며 정리하는 과정은 '한국의 문학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 걸음일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다.

---

13)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소설이냐의 논란에 대해서는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있어 왔다. 고정옥은 『국어국문학요강』(대학출판사, 1949)를 통해 <홍길동전>은 국문본인지 한문본인지 의문이라며 <홍길동전>에 대한 논란의 물꼬를 열었다. 뒤를 이어 정주동 역시 『홍길동전 연구』(문호사, 1961)를 통해 국문소설의 경우 일정한 관용어를 붙여 소개한 문헌상의 사례들을 인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홍길동전>이 한문소설이라는 의견을 이어 나갔다. 최운식의 『한국고소설연구』(보고사, 1997)와 조희웅의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어문논총』1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한 대표적인 논문들이다.

14)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15) 황패강, 「나암보우와 왕랑반혼전」,『한국 서사문학사 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16) 이복규, 「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제 2 장 한글의 창제와 문학적 기능성

본 장에서는 한글의 창제와 문학적 기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한글 창제의 문학사적 의의를 알아보고 한글로 표기된 문학작품의 형성과 기능 그리고 한글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 등을 차례로 살펴 볼 것이다.

2.1 한글 창제의 문학사적 의의

문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를 고스란히 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를 거스르기도 하지만 표현을 달리할 뿐 결국은 시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역사와의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 국문문학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한글의 창제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것 역시 한국 국문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한글'이라고 불리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1443년(세종 25년)의 일이다. 3년 후인 1446년 민중에게 반포된 후 훈민정음은 시간을 거듭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독자적이고 대중적인 글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훈민정음의 역사적 의의는 다각적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총체적으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나 가치관이 공유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데에서 큰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를 문학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 훈민정음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통 한국문학사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면면히 녹아 있던 설화적 소재를 그들의 고유 문자

인 한글을 통해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게 됐다. 훈민정음이라는 한글 창제는 그간의 표기 수단인 한문과, 한자에 의한 국어 차자표기를 대신한다는 단순한 표기 체제의 변화를 넘어서 한국인의 의식을 가장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인의 기본적인 표현 동력이 된 것이다. 한문학의 등장과 차자문학의 시작에 이어 본격적인 "국문문학의 시대를 여는 구실"[17]을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글의 창제는 한국문학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글 창제는 문학이라는 매체 속에서 역사적 시간을 보다 폭넓게 펼쳐 내고 더불어 가능한 미래의 영역을 상상하고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자국인의 말을 통해 창작되는 한글문학은 작품 속에서 온전한 한국인의 의식적 생명력을 유지한 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역사의 현장을 기록 이상의 의의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는다면 진정한 한국인의 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물꼬를 트게 했다는 점이자 동시에 한국문학사의 현재를 잇고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글 창제와 더불어 작품화된 한글문학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인의 살아 있는 역사를 창출해 내고 있다.

셋째, 언어의 근본이 되는 문자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의식체계의 기본이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글의 창제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하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자국민의 언어를 가짐으로써 한국인의 의식을 가장 한국적으로 표출하면서 한국인 자체의 문화 생활권을 형성하게 됐다. 한국인의 의식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은 한글이라는 언어를 소통하면서 그 언어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글 창제를 통해 한국문학은 그간의 중국 전래의 규범에서 벗어나 민족문학으로서의 자존적인 범위를 확고히 축적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시간의 흐름이 수반되면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훈민정음 창제 후 문학 제반에서 한자의 사용은 차츰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다. 이후 한때 절정을 이루던 한문학 역시 주춤하기 시

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279쪽.

작한다. 언어의 사용이 사유(思惟)를 만들어 내듯 한자 사용의 감소는 당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중국 전래의 양상을 벗어 내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국문학사는 자존적이자 온전한 한국문학과 민족문학을 이끌어낸다.

다섯째, 한글의 출현과 더불어 한문으로 기록될 수 없는 한계로 구전되었던 '민중의 노래'가 비로소 문자로 정착되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게 됐다. 노래는 운율이 있어 가락을 붙여 부르고, 부르는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문으로 옮기자면 말과 문자가 달라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노래가 가진 가락의 기능은 마멸되게 마련이다. 한국인은 이러한 기능을 찾기 위해 차자표기를 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말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이두와 향찰 등의 표기가 모두 이러한 소망의 표출이었다. 그러던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이룬 것이다. 민중은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한글을 통해 그간 불렸던 민중의 노래는 비로소 제대로 정리되고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의 창제는 민중의 문학인 구비문학을 기록문학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섯째, 문학의 대중성을 획득한 점이다. 조선시대는 독특하게도 모든 영역의 근간에 성리학이 뿌리박혀 있었던 시대이다. 이러한 사상의 기조를 통해 문자생활권의 범위는 권위중심의 문화 체제 일변도로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자연 양반권의 문자인 한문은 진서(眞書)로 인식되었고 백성들이 사용하는 한글은 언문(諺文)으로 구별되며 훈민정음은 천시되었다. 그러던 훈민정음이 한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자생활의 부차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문학의 판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글로 표현된 문학작품이 여성이나 일부 문인들에 의해 읽혀지고 쓰이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하층 민중 공히 한글의 문자생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현실 인식과 흥미를 아울러 갖춘 문학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글문화의 수호자"[18]의 역할을 해낸 여성들의 문화 참여의 기회가 적극적

으로 진행되면서 “국문문학은 급기야 한문학과 맞서서 크게 성장”[19]하는 기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의 대중화를 이뤄낸 저변에는 한글이 존재했고, 문학의 대중화는 한글문학의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 촉매제로 등장하게 됐다.

일곱째, 한글 창제 이후 한글문학은 시조와 가사의 발전과 더불어 소설로의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시가문학은 악장과 경기체가 그리고 가사와 “국민문학”[2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조로 대별된다. 이들 시가문학이 한글 창제를 통해 작가층의 대중화를 이뤄내면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된 변화 중 하나가 ‘서사화’이다. 두드러진 모습은 시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민작가가 양산되고 장시인 사설시조가 탄생하며 내용에는 사실적인 묘사가 더해졌다. 경기체가 역시 이후 긴 장편의 가사로 옮겨지면서 음악으로서의 구실은 줄어들고 문학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장편과 서사화의 영향을 통해 산문문학이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게다가 그동안 성숙해 온 문학적 역량과 여건이 사상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보급을 통해 기존의 한문이 갖는 표현적 한계를 벗어 던지고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소설문학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한글 창제는 문학의 제반에서 한국문학을 보다 정통적인 한국문학사로 진입케 하는 교두보이자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글’이 갖는 이들 일곱 가지의 ‘문학적 기능’들이 한국문학의 발전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내었던 것인가?

한글의 문학적 기능성들은 우선 ‘소설’의 발생 과정에서 톡톡히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표기체계로서 ‘한문’과 ‘한글’이 갖는 차이에서 분명히 인식된다. 한문이 남의 나라 글이라는 이유로 순수한 한국문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면, ‘한글’을 사용한 문학은 본격적이고 정통한 ‘한국문학’이 되는 것이다. 또 당시 문학

---

18) 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411쪽.
19) 조동일, 앞의 책, 283쪽.
20) 조동일 외, 『한국문학연구 입문』, 지식산업사, 1994, 400쪽.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외적인 성숙도를 높여 가고 있었으니 어떻게 표현할지 내용이 무르익어 있고, 거기에 그 내용을 거침없이 자유스럽게 받아 쓸 표기체계가 갖추어졌으니 문학 범주의 영역은 자연 확대되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무한한 가능성을 넘나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짧은 시가의 운문문학에 비해 소설과 같은 긴 서사문학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언어는 정신과 사고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사용은 '한자적 사고'를 낳게 하고 '한글'의 사용은 '한국적 사고'를 낳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글문학'은 민족의 동질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케 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한글문학'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망라할 때 한국문학, 특히 소설에 있어 '한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 시사점은 앞서 언급한 한글의 '문학적 기능성' 중 네 번째까지의 기능성을 고스란히 확인시켜주는 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글의 문학적인 기능성은 무엇보다 긴 글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는 서사문학, 특히 '소설'을 이끌어 내는 데 주요한 거점이자 근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학적 기능들이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탄생시키기까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후 각장에서 보여 줄 것이다.

2.2 한글로 표기된 문학작품의 형성과 기능

한글 창제 이전의 한국문학은 양반이라는 한자 사용자층의 작품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문문학은 온전한 한국문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문학을 표기하는 수단이었던 한문이 지배층의 전유물로서 대중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이 음성을 통해

밖으로 표출하는 사상과 감정을 다른 나라의 문자인 한자로 문자화하여 표현하는 것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내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인의 문자인 한글의 창제이다. 한글의 창제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자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터라 적당한 표기수단을 갖지 못해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해 낼 수 없었던 평민들에게 있어 훈민정음의 보급은 대단한 변화를 끌어냈다. 훈민정음을 통해 평민들이 문학의 작가층과 향유층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문학의 창작과 향유의 영역에 속하게 됨으로써 한국문학은 귀족들만의 문화가 아닌 본격적인 대중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써 사회비판적이고 해학적인 서민문학은 문학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한글 사용자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책 사업을 마련하게 된다. 한글 사용의 실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그 중 하나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창업을 노래한 악장문학의 대표작이자 훈민정음으로 창작된 최초의 문학이다. <용비어천가>에 이어 “부처의 교화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비유”[21]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역시 훈민정음으로 창작된 대표적인 악장문학으로 문학적 가치뿐 아니라 고대 한국어 연구 자료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는 노래인 악장문학은 계속해서 한글로 속속 창작되었다. 정도전(鄭道傳)의 <문덕곡(文德曲)>과 <무덕곡(武德曲)>을 비롯하여 상진(尙震)의 <감군은(感君恩)>에 이르기까지 악장은 국문시가의 한 갈래를 형성하였다. 고려 후기에 발생한 경기체가 역시 조선 전기의 문인들에게 계승되어 권근(權近)의 <상대별곡(霜臺別曲)>, 변계량(卞季良)의 <화산별곡(華山別曲)> 등으로 계승 발전되어 창작되기도 하였다.

또 한문으로 전해지던 수많은 문헌들이 번역되어 학습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석보』와 같은 불경 번역 작품과 <내훈(內訓)>, <삼강행실도(三綱行實

21) 이수형, 『한국 고전문학의 분석과 감상』, 송정문화사, 2004, 281쪽.

圖)>, <번역소학(飜譯小學)>, <소학언해(小學諺解)>, <효경언해(孝經諺解)>와 같은 경서(經書)의 번역 작품들이 그러하다. 문학서(文學書)의 번역 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되는데,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연주시격언해(聯珠詩格諺解)>, <황산곡시집언해(黃山曲詩集諺解)>,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이때 번역된 문학 작품들이다. 불경류의 번역 사업과 함께 사서(四書)를 비롯한 유서(儒書)와 『능엄경』을 비롯한 불전 그리고 두시(杜詩)를 비롯한 문학서의 번역 사업 등을 통해 한글 보급의 대중화는 현실화되어 갔다. 또 유교에 입각하여 행실을 가다듬는 데 필요한 책을 만들고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여 간행하는 사이에 한글문장의 실용성과 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입증되게 된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의 대중화는 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번역문학으로 시작된 한글문학은 점차 창작성을 가미한 독자적인 문학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운문문학을 중심의 모습을 띠고 이후 산문문학에까지 확산이 된다. 대표적인 장르로 전자에 언급한 악장, 그리고 가사, 시조 등의 장르를 꼽을 수 있다.

가사문학은 3·4조 또는 4·4조의 단가 형식이 연속되는 장르로 대표적인 한국의 운문문학이다. 성종 때 지어진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은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상춘곡>과 같은 가사문학은 15세기 말엽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벼슬을 떠난 사람들이 산야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됨으로써 발생한 자연 문학의 한 지류를 형성하는 문학 장르 중 하나이다. 가사는 특히 그간의 단가 형태를 벗어난 장형으로, 설득적인 유교 이념을 표현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알맞은 형태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데, 정극인의 <상춘곡>을 필두로 조위(曹偉)의 <만분가(萬憤歌)> 등의 작품은 사대부문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은일, 유배, 기행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에 와서는 그 절정을 이룬다. 이후 가사문학의 작자층에 평민들도 가세하며 대중문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 다른 운문문학인 시조는 고려 말 정착된 장르 중 하나이다. 시조 자체의 형식 자체가 간결하고 정형성을 띄고 있어서 당시 유학자들의 검소함과 담백한 정서 표현에 알맞은 양식이어서인지 여타의 장르보다 활발한 움직임과 발전을 보이는 장르 중 하나이다. 시조의 내용 또한 시류의 흐름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창작 초기에는 주로 구왕조인 고려에 대한 회고, 사육신의 충절, 무장의 기개 등을 읊은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후 주세붕(周世鵬)의 <오륜가(五倫歌)>와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등의 유교적 실천윤리를 노래하는 교훈시조,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등의 강호가도의 전통을 수립하기도 하면서 시조는 작품 속에서 유교적 이념의 내용을 충실히 수록해 낸다.

시조의 틀에 박힌 유학적 이념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사대부층의 부속물에 불과"[22]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16세기에 들어와 시조의 문학성은 점차 다양해지며 심화되었다. 시조의 변화를 이끌어 낸 이유 역시 작자층의 다변화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시조를 창작한 이가 더 이상 양반에 국한되지 않는 점이다. 평민도 기녀도, 규방의 여인들도 이제는 자신의 심회를 털어 놓을 수 있는 표기 매체가 보급됐고 이를 통한 작자층의 변화가 결국 시조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즉 훈민정음이라는 한글 사용의 본격화가 문학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시조문학에서의 이러한 작자층의 변화는 그간의 유학자들의 관념적인 경향의 기조를 엎고 미적 정서인 고독과 恨,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적 정서는 기녀문학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시조의 작가층에서 황진이(黃眞伊), 매창(梅窓), 홍랑(洪娘) 등의 기녀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로서 그녀들의 문학성은 극찬을 아낄 수 없는 수작들로 평가되고 있다.

시조문학에 있어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형식의 변화이다, 맹사성(孟思誠)의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박인로(朴仁老)의 <입암가(立巖歌)>,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五友歌)> 등의 작품 등

22)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287쪽.

은 그간의 단시조로 짓던 시조를 여러 수를 묶어 한 주제를 나타내는 시조로 연시조를 발생시켰다. 그 외에도 3장 6구의 정형적인 형식을 파기하는 엇시조, 사설시조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설시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문학 중 하나로서 본격적인 문학의 대중화를 이룬 대표적인 장르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 『악장가사(樂章歌詞)』와 같은 가집(歌集)들이 편찬되면서 구전되어 오던 작품들이 문헌에 정착되고 시조문학은 더욱 활기를 띠며 가사와 더불어 조선 시가문학의 대표적 장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의 문학은 다양한 장르와 작가층의 대중화를 통해 다양성과 심화성이라는 두 문학성을 동시에 이끌어 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이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당시의 문화 향유층을 변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조선의 문학은 한층 다양하고 심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운문문학의 변화에 이어 산문문학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설화문학의 발전과 중국 소설의 영향으로 소설이 발생하여 산문문학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실의 정확한 묘사와 기록'이라는 한글표기 체계의 장점을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기록하면서부터 변화의 시류에 당면하게 된다. 한글 문장이 발휘하는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표현력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많은 다양한 작품군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글수필이 출현하게 되고 일기, 기행, 수기, 회고록, 내간, 창작 수필, 궁정 수상 등 다양한 양상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특히 궁중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수필문학인 궁정 수상은 한글의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내간체(內簡體)는 15세기 중엽 한글이 창제되어 사대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편지와 기행, 생활 기록에 널리 쓰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한문과 달리 관념성과 규범성을 벗어나 일상적 체험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이들 작품군은 여성다운 섬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한국 국어 산문문학의 독특한 경지를 보여 주게 된다. 한국인의 조상들이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훈민정음의 창제에 있다. 한글 문학 작품을 형

성할 수 있고 고유한 문자와 민족문화의 발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 또한 한글 창제에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학은 훈민정음 창제를 발판 삼아, 한글이라는 표기체계가 발휘하는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표현, 또는 고도의 압축적이며 적확한 언어의 형상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 국문문학으로의 시작을 열어 보인 것이다.

2.3 한글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

앞에서 언급했듯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말의 전면적인 표기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을 열게 하였다. 그러나 창제 직후 곧바로 한글 문자의 대중화를 획득할 수는 없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한자 사용으로 한자의 문장 구사에 익숙해 있던 지배층들의 언어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과, 한글을 널리 알리고 보급해야 할 식자층에서 훈민정음을 수용하기는커녕 한자 사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글의 사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훈민정음의 사용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문자 보급 수단 및 교육 여건 또한 미비했던 때라 한글의 전파는 더욱 쉽지 않았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한국문학사를 이끌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정책적 결실이 요구되었다.

이 작업을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했던 왕과 왕실에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중심으로 불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훈민정음의 보급과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왕실에서는 훈민정음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불전의 출간을 시작했다.[23] 또 한문 문헌에 대한 번역 즉, 언해를 행하거나 새로 만들어진 국문자로 책을 만드는 이른바 정음 문헌과 같은 간행의 형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끌어 내며 적극적인 보급책을 수행해 왔

23) 권기종, 「이조후기의 불전간행 경향」, 『불교학보』 제1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5, 15쪽.

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세조, 성종을 거쳐 연산군 때에 이르는 50여 년간 간행된 정음 문헌이 40여 건 전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당시의 출판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놀랄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간행된 정음 문헌들은 한글판 『오대진언(五大眞言)』 중 <수구영험(隨求靈驗), 1476>과 의약서 언해인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 1497>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왕실이나 국가기관이 주재(主宰)해서 만든 관판본(官版本)들이다. 관판본들은 후대의 사각본(私刻本)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들로 장책(粧冊) 상태는 물론 형태서지학적 제반 사항들이 후대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제되어 있다. 완벽에 가까운 기획과 철저한 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판본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출(印出) 환경이 양호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역량이 결집된 성과물임을 보여 준다. 이는 훈민정음의 보급이 왕실의 주요 사업이며 왕실의 관심도를 여실히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문헌들을 겨우 반세기만에 간행해 낸 사실을 감안한다면,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왕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책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의도와 이상은 문화의 향유는 전체 백성의 것이므로 일부 지배 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제정되자 문자 창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현전과는 별도로 궁중에 언문청을 설치하였다.[24] 훈민정음의 보급과 이에 부수되는 문헌의 간행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례와 같은 원리면의 연구도 여기에서 정리되었다. 이후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사는 1444년 2월 <운회(韻會)>를 언해하고 같은 달에 최만리(崔萬理) 일파의 반대 상소 즉,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듦이 사대모화(事大慕華)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인이 만들어 놓은 운서를 뜯어 고치고 언문을 다는 것이 모두 무계(無稽)한 짓이라는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나 1445년 4월 <용비어천가>가 완성되고 이듬해 3월 『석보상절』의 언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해 9월

24) 『세종실록』 이십팔년 병인 십일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이루어져 반포되고 1447년 9월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완성 및 <용비어천가>가 반포되었다. 1448년(세종 30년) 11월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국정운>이 반포되었다. 이윽고 1455년(단종 3년) 봄에 빈번한 중국과의 접촉에서 중국어 습득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어에 대한 표준적인 운서를 정하고자 <홍무정운(洪武正韻)>의 역훈(譯訓)이 완성되었다.

한글 보급에 대한 노력은 시대를 거쳐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정인지(鄭麟趾)는 "문자가 언어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학자와 서생은 그 뜻을 밝히기가 어렵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어렵다"[25]고 개탄하였다. 한글의 사용은 학문의 연구나 국가의 정사에 도움이 된다는 대변이었다. 문종은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언급될 정도로 부왕의 한글 창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26] 문종은 즉위 후에 2년 3개월 만에 병사하지만 <동국정운>을 진사시 과목으로 정하고 정음청을 운영함으로써 세종의 한글 창제 유지를 이어 갔다.

세조는 훈민정음 언해본 중 가장 중요한 해례본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자신이 한글로 지은 『석보상절』과 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의 합본인 『월인석보』가 실려 있다. 조선시대의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양반 사대부의 가장 마을 대표 또는 가르칠 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라는 공식적인 규정이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매년 정월과 7월에 실시하는 녹사(錄事) 시험에 언문을 당당한 과거시험 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글의 학습과 보급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이다.

성종과 중종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구황촬요(救荒撮要)』 등 일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나 곡식에 대한 서적을 국가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적극적으로

---

25) 『훈민정음 해례』

26)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東宮於公事 則雖細事不可不參決 若語不急之事 何竟日致慮乎" (<甲子上疏>, 世宗 二十六年 二月 二十日).

반포하였다.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은 한글의 학습을 권장했다는 의미이다. 영조와 정조는 구휼에 관한 윤음을 한문과 한글로 옮겨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비록 백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은 글이지만 한글은 한문과 거의 대등한 모습으로 조정의 발표에 쓰인 것이다. 한글은 외교문서로까지 활용되었다. 경종 원년(1720년)에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고부사 이이명(李頤命)은 왕비 책봉에 관한 청나라에서의 상황을 한글로 써서 조정에 알렸다. 조선시대에 훈민정음 보급의 일등 공로자는 왕실 여성들이었다. 왕실의 여성들이 발행한 공식 문서는 한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閑中錄)>과 같은 명작이 창작되었다. 허균(許筠)과 김만중(金萬重)의 한글소설이 갖는 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정철(鄭澈), 박인로(朴仁老), 윤선도(尹善道) 등의 시조나 가사 작품 및 김만중의 송강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은 사대부들 중에도 한글을 한문 학습의 보조도구를 넘어 문학적으로 심취한 증거이다.

한글의 보급이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노력은 유교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특수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급하여 유교국으로서의 입지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글 보급은 연산군 시절의 언문상소의 예와 같이 언문상소를 활성화하여 민심을 널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수혜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서민들을 구제하고 탐관오리의 횡포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의 지시나 교지가 백성에게까지 널리 전달되어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외편(七政算內外篇)>과 같이 역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서의 한글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절기 계산과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깨우쳐 농업생산을 증대할 수 있게 하였다. 한글의 보급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과학기구와 농서의 편찬은 백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성장은 후에 동학농민운동과 신분제 타파 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 고유의 글자 탄생으로 한국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문화는 자긍의 역사를 갖게 될 수 있었다.

제 3 장 소설의 성립과 한글번역소설의 등장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시대 변천에 따른 문학의 특징과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소설 장르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글번역소설인 <설공찬전>은 한글보급과 본격적인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의 등장에 끼친 영향과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3.1 소설 장르의 발생

문학은 시, 무용, 음악 등 종합적인 원시예술 형태에서 발전한다. 종합예술은 사회적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능과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는 종교적 기능, 그리고 식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원시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이 다변화되고 분업화됨에 따라 예술도 분화되고 해체되어 음악과 무용 그리고 시가 등과 같이 그 표현방법은 개별적인 분야로 독립된다. 개별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가 문학으로, 문학은 또한 성격과 특성에 따라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었다. 그 중 서사문학의 중심축을 이루는 '소설'의 성립과 발전은 시대와 다양적 문학적 여건들이 무르익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형성 또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는 문학양식이다. 이중 구전으로 유포되던 신화와 민담 그리고 설화가 한자의 사용과 함께 문자로 정착되면서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일반적인 소설의 발생설이다.

특히 설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이다. 신화와 전설, 민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각각의 작품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한국의 민족신앙으로 발전되어 많은 파생적 설화를 형성하게 된다. 또 발생 과정이 자연적이고 집단적이며 민족적이고 평민적인 특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화는 한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담고 있게 된다. 이러한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고 문학적 형태를 구비하면서 설화문학의 장르를 형성한다. 상상력을 자극한 허구적이며 공상적인 특징을 가진 설화는 이후 서사적인 주된 특징 속에서 소설의 장르를 탄생시키는 근간이 된 것이다. 고조선의 건국을 담은 단군과 가야국을 건국하고 최초의 국제결혼을 시도한 남자 김수로왕 이야기 등을 담은 건국신화의 재현, <균여전설(均如傳說)>과 <강감찬전설(姜邯贊傳說)> 등의 인물 전설들이 그러한 예로, 짧지만 서사문학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난 이들의 이야기는 이후 영웅소설, 가족사소설 등 후대 소설의 모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화와 전설이 수록된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설화의 보고이며, 한국 소설사의 근본 시작을 입증하는 문학사의 자료라는 점에서 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신화, 전설 시대의 계보를 이어 발생한 서사 양식으로 실전(失傳) 되었으나, 고려 전기에 박인량(朴寅亮)이 지은 『수이전(殊異傳)』의 일문(逸文) 10편 역시 『삼국유사』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태평통재(太平通載)』 등에 전해지면서 한국 서사문학사는 한자를 이용한 정착문학으로 고정되어 패관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발전한다. 이어 『수이전』에 수록된 승전(僧傳)과 <최치원설화> 등은 전기설화 또는 전기소설의 유형을 이룩하고, 『수이전』의 유행은 이후 소설의 모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신라 말, 고려 초 집중적으로 창작되어진 패관문학류와 이후 계속해서 등장하는 소설 초기형의 작품들 전기소설류, 가전체류는 '소설' 전단계의 작품들로 한글소설의 성립에 대한 고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한 장르들이다. 특히 전기소설과 가전체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과 가전체(假傳體)문학에 대한 선 이해는 주요한 작업이다. 한국소설의 성립기를 특징짓는 주요한 양식이자 소설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소설은 설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소설의 시각에서 볼 때, 전기소설이나 가전 등은 소설과 비교하면 완성된 소설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 사실이다. 소설이라기보다 설화에 가깝고 갈등이나 사건 전개 등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미

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미완의 설화적 요소들이 이후 소설을 이끌어 내는 자극제이자 기폭제가 됐음은 당연하다.

문치정책을 표방했던 고려시대는 과거제도의 실시로 한문학이 급성장하던 시기이다. 이때 발달한 한문학의 쾌거 중 하나가 설화문학의 확대이다. 그중 계세징인을 목표로 물건을 의인화하는 문학 양식인 가전체문학은 고려 후기에 발달한 설화와 소설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서사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모영전(毛穎傳)>과 신라 설총(薛聰)의 <화왕계(花王戒)>에 기원을 두고 있는 가전(假傳)문학은 이들 문학들이 내포한 허구성과 독창성과 창작성 등의 특징 속에서 소설에 매우 근접한 의인체 전기소설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설화가 특정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보편적인 문학이었다면, 가전체는 설화의 형식에서 진일보한 개인의 창작물로서, 그리고 허구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소설에 바짝 다가간 모습이다.

임춘(林椿)의 <국순전(麴醇傳)>과 <공방전(孔方傳)>, 이규보의 <국선생전(麴先生傳)>과 이색의 <죽부인전(竹夫人傳)>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 이색(李穡)의 <정씨가전(鄭氏家傳)>과 이규보(李奎報)의 <노극청전(盧克淸傳)>, 그리고 이곡(李穀)의 <절부조씨전(節婦曹氏傳)> 등의 작품들은 전기소설로서의 변모를 제시하기도 한다.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서사 장르 전기소설과 가전 양식의 문학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숙성되고 정제되는 과정을 거쳐 조선 시대 초기 비로소 본격적인 소설의 탄생을 맛보게 되는데, 바로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이다.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이라 평가받는 『금오신화』는 시대를 거치면서 쌓아온 문학적인 제반 여건이 농염하게 익어 터뜨린 완벽한 소설 장르로서 한국 서사문학사의 새로운 기원을 이룬 작품이기도 하다.

『금오신화』를 기점으로 의인소설(擬人小說)과 몽유록(夢遊綠)소설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다. 조선 초기부터 등장한 이들 의인소설은 고려 시대의 가전체 소설을 바탕으로 성장한 작품들로 소재의 현실성과 강력한 시대성이 있으면서 창

의성이 크게 부각되고, 주제면에서 다양한 풍자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양식이다. 의인소설과 함께 꿈을 통한 일종의 의식분열 현상을 소설 모티프로 사용하는 몽유록류의 문학 양식이 등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문학 형식의 등장과 함께 문학사에 회오리가 몰아닥치는데, 바로 '한글의 창제'이다.

그동안 문학의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던 '한문'이 남의 나라 글이어서 표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한글'을 사용한 문학은 본격적이고 정통의 '한국문학'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 내외적으로 숙성한 문학의 완성도가 갖추어져 있으니 어떻게 표현할지 내용이 무르익어 있고, 거기에 그 내용을 거침없이, 자유스럽게 받아 쓸 표기체계가 갖추어졌으니 문학 범주의 영역은 자연 확대되고 무한한 시간을 넘나들게 된다. 짧은 시가의 운문에 비해 긴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에서의 이러한 영역확대와 변화는 훨씬 더 크고 구체적이다. 또 언어는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기도 했다. '한자'의 사용은 '한자적 사고'를 낳게 하고 '한글'의 사용은 '한국적 사고'를 낳게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글문학'은 민족의 동질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케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글문학'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망라할 때 한국문학, 특히 소설에 있어 '한글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 시사점은 2장에서 앞서 언급한 '한글'의 '문학적 기능'을 그대로 재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글'의 문학적인 기능성은 무엇보다 긴 글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는 서사문학, 특히 '소설'을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거점이자 근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창제 이후 세종과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글 사용'의 대중화를 꾀하는데, 이때 나온 대표적인 사업들이 바로 불경 언해 사업과 문학 번역 사업들이다. 불경 언해 사업은 특히 당시 많은 불전 작품들을 쏟아내게 하는데, 이때 창작된 불전작품들은 실제 한글소설의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한글 창제 이후에 불교 포교의 목적으로 쓰여진 이러한 한글 불서들은 "국문소설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27]라는 의견까지 대두될 만큼 한국 문학 작품의 배경과 기본적 체계를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17세기 초엽에 이르러 한국의 고전문학사는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의 탄생을 맞이한다.

한편, 『금오신화』 이후 한국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소설'이라는 용어는 이규보의 시화집 『백운소설』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그러나 『백운소설』에서 사용된 '소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설'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목으로서 지칭어에 불과하다. 문학 장르로서 '小說'의 의미는 발생 초기 한자적 의미가 말하듯 '사소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작은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라는 기본적 의미가 말해 주듯 이규보가 자신의 저작물 『백운소설』을 '소설'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소하고 작은 '잡기(雜記)'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겸양의 표현으로 '소설'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듯 '소설'이라는 장르는 발생 초기 당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보잘것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조선조는 유학 이념이 확립된 시기이고, 조선조 양반 사대부들은 유교적인 공리성의 효용론을 중시했기 때문에 부질없고 사소하며 허황한 이야기 거리는 입에 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설에 대한 배척론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다. 도덕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대두된 이러한 '소설무용론(小說無用論)'은 1880년대까지 존재하게 된다. 李德懋[28]같은 전형적인 유학자들은 "연의소설은 作奸害人하는 것으로서 子女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29]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홍길동전>의 기록이 수록된 이식의 시문집 『택당집(澤堂集)』에서도 소설이 인성에 끼치는 해독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설에 관계되는 서적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소설에 대한 옹호론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만화옹[30]과 김만중을 들 수 있다. 김

---

27)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53쪽.

28) 이덕무, 『청장관전서』, "내가 어렸을 적 10여종의 소설을 보았는데 모두 남녀의 風情을 이야기했고 閭巷의 비속한 상말로 되어 있다."

29) 演義小說 作奸誨淫 不可接目 切禁子弟 勿使看之 (李德懋, 『士小節』)

30) 만화옹, 『일락정기』. "세상에 소위 소설이라는 것이 말이 모두 비리하고 내용 황탄하여 모두 기이하고 간사한 이야기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중 <남정기>, <감의록>이라 부르는 수편은 사람을 설득하여 자못 깊은 뜻을 감발시켜 줌이 있다."

만중은 '한글' 애호가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면 소설 역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소설 옹호자로서, 그의 의식을 보여주는 실천도구로서,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와 같은 훌륭한 한글소설을 창작해 내기도 했다.

문학사가 문학의 역사이듯이 한국소설사도 한국소설의 역사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소설 장르의 발생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이러한 제반의 시대 흐름과 변화를 숙지하며 한국소설사의 시대 구분을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3.2 한글번역소설 <설공찬전>의 출현과 의의

<설공찬전>의 국문본이 1997년에 발표[31]되면서 학계는 놀라운 충격에 휩싸였다. <설공찬전>이 발견될 당시 국문본이었다는 점에서, 또 '소설'이라는 장르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거리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설공찬전>에 관한 내용은 『중종실록(中宗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록에 따르면 <설공찬전>은 중종 6년(1511년) 9월 5일 왕명에 의해 불태워진 금서로서 "내용이 허망하고 요망하니 금지함이 옳다"[32]하여 불사르라는 내용과 함께 숨기고 이를 내놓지 않은 자는 처벌하라는 엄명이 함께 시달되었다.

실록을 통해 <설공찬전>의 창작 시기는 최소한 중종 6년인 1511년이거나 그 이전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게다가 한글본이었다는 점에서 학계는 충격에 싸이게 됐다. 이는 그간의 정통 학설로 굳어진 최초의 한글소설인 허균(許筠)의 <홍길동전> 보다 100여 년이 앞서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광한(申光漢)의 『기재기이(企齋記異)』(1553년)[33]보다 42년 이상 앞선 것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

31) 이복규, 『설공찬전(주석과 관련자료)』, 서울: 시인사, 1997.
32) 『중종실록』, 6년 9월 2일
33)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90.

를 바로 이어주는 작품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홍길동전>에 이르기까지 약 170여 년이 고스란히 공백기로 남아 있던 한국의 초기 소설사에서 이 공백을 메우고 소설사를 다시 쓰느냐의 판도 변화가 일 수 있었던 첨예한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홍길동전>보다 먼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국문본 <설공찬전>이 발견되자, 무엇보다 학계는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홍길동전>에 대한 그간의 정설이 흔들리면서 <설공찬전>을 둘러싼 최초의 한글소설 논란이 공방을 시작했다.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설공찬전> 국문본이 번역본임이 알려지면서[34], 학계는 다시 '한문소설의 한글번역본을 한글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두고 한글소설에 대한 명확한 범주 및 정의에 대한 문제는 다시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설공찬전>이 한국문학사에 던진 파격적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35]

첫째, <설공찬전>이 '소설'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점이다. <설공찬전>이 학계에 대두될 때 설화인지, 소설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문본을 탐독한 결과, 독립 작품으로 존재한다는 점, 작가의 창작의식이 엿보인다는 점, 또 당대의 창작품으로 인식된 점에서 <설공찬전>은 소설로서 가치가 입증되었다. 또 저승 이야기를 담고 윤회사상을 담고 있어 불교문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설공찬전>은 불교 포교를 위해 간행된 불교 문학서들이 아닌 순수한 개인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담는 작품이다.

둘째, 한글 창제 후 <홍길동전> 이전의 한글소설이 나오기까지 공백기나 다름없던 시대를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학계는 <설공찬전> 국문본 발

---

34) 『중종실록』, 6년 9월2일(己酉)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輪廻禍福의 내용으로 매우 요망합니다. 조야에서 현옥되어 믿고 한문으로 베끼거나 국문으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케합니다."라는 실록 기록을 통해 <설공찬전> 원본이 '한문본'임이 밝혀졌다.

35)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서울, 2003. 참조

견으로 지금까지 추측과 심증 차원에서만 <홍길동전> 이전의 국문소설 존재를 막연히 추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설공찬전> 국문본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추측과 추정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셋째, 국문본 <설공찬전>은 원본이 비록 한문본이지만 국문으로 수용된 최초의 소설로서 본격적인 한글소설을 등장하게 한 길잡이 역할을 한 점이다. 국문본 <설공찬전>의 선례를 이어 국문본 <왕랑반혼전>(1565년경), 권필의 <주생전>(1593년) 국문본이 나오는 등 비로소 '소설'을 '한글'로 표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의미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작자미상의 <한강현전>, <소생전>의 작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쾌거는 전자의 <설공찬전>의 역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넷째, '한글'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도와 파급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설공찬전>의 창작시기를 『중종실록』에서 거론된 1511년으로 추정했을 때, 한글이 창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글 번역본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輪廻禍福의 내용으로 매우 요망합니다. 조야에서 현옥되어 믿고 한문으로 베끼거나 국문으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케합니다."[36]

『중종실록』에 언급된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전파력과 민중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급속도록 파급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설공찬전>은 제목 역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기존의 작품들에서 한문본 원전은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통칭해 왔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한글본 <설공찬

---

36) 『중종실록』, 6년 9월2일(己酉) - "蔡壽作薛公瓚傳 其事輪廻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飜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전>의 책 제목에는 그 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설공찬전>이나 <설공찬환혼전>이 아니라 <셜공찬이>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설공찬전>이라 하고 『패관잡기』에서는 <설공찬환혼전>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저서에 제목이 다르게 붙여졌던 것일까? 한국의 고소설 중에서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이'로 붙여 사용했던 사례는 <셜공찬이>가 유일하다고 할 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인칭 접미사 '이'를 붙이는 시도는 따라서 당시로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이다. 이복규는 이에 대해 "조정에서 문제 삼을 때는 우리말식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문학의 관습에 따라 '설공찬전'이라 하고, 어숙권이 거론할 때는 작품의 중심 내용이, 죽은 사람의 혼이 되돌아오는데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설공찬환혼전' 이라 명명했던 것이라 추정"[37]하고 있다. 또 이복규는 현전하는 국문본이 원작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라면 <셜공찬이>가 맞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중국의 경우나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처럼 주인공 이름 뒤에 '전'자를 붙이는 대신 한국식으로 인칭 접미사 '이'를 붙였을 것 추정한 것이다. 제목이야 어찌됐든 <설공찬전>은 전(傳)의 외관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며 전사(傳史)의 흐름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38]는 평가를 더하며 작품의 위상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설공찬전>은 한글본의 제작 연대와 소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최초의 한글소설에 대한 논쟁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초의 한글소설과 형식으로서의 한글소설[39]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한글소설은 창작 당시 작가가 작품을 한글로 지었느냐, 한문으로 지

---

37)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3, 21쪽.

38)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116~123쪽.

39)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국문'은 문자와 글을 동시에 의미하고 '한글'은 문자만을 의미하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문'은 한국어를 '한글'이라 문자로 적은 글이지만 한글은 한국 고유의 문자만을 의미할 따름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한국말을 사용하여 사상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은 '한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문소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글소설'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었느냐에 따라 한글소설이냐 한문소설이냐로 구분된다. 즉 창작 당시의 작품 원본을 창작자인 작가가 한문으로 표기했으면 한문소설이고 한글소설로 표기했다면 한글소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 한글로,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한문으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40]는 점을 들어, 특정 작품이 한글소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원작은 비록 한문이지만,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도 한글소설의 일종으로 삼는 "번역체 국문소설"[41]이라는 주장 또한 강력하여 한글소설의 또 다른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국내 창작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품의 기능상 소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중론"[42]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와 허균의 <홍길동전> 사이에 170여 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문으로 인해 <안락국태자전>이나 <목련전> 등을 국문소설[43]로 규정하기도 하고 <왕랑반혼전> 한글본을 최고(最古)의 국문소설[44]로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소설의 영향 아래 한글소설이 창작되었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한국소설사를 체계화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견들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글소설의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가에 따라 한글소설의 범위는 매우 다변적이 된다. 원전이 전해지지 않은 작품이 다수일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확연한 구분을 짓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글소설과 한문소설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16세기 초 채수에 의해 지어진 <설공찬전>이 『묵재일기(默齋日記)』라는 한문 일기책의 이면에 한글로 필사되어 발견됨으로써 한글소설이냐 한문소설이냐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소설을 논의할 때, 최초의 한국소설을 『금오신화』에 두고

---

40)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고전문학회・한국한문학회 공동 주최 1998년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12.
41) 황패강, 『조선왕조소설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1978, 59쪽.
42) 조희웅, 『이야기문학 모꼬지』,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1995, 47~50쪽.
43)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대전: 중앙문화사, 1994, 8쪽.
44)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262쪽.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 소설로 규정”[45]하는 것에 대한 확고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이 바로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의 “상호 전환이 활발했던 상황”[46]에서, 한글과 한문이라는 표기수단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독자의 요구에 호응해서 수시로 전환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한국문학사의 실상”[47]이기 때문이다.

<설공찬전>의 한글본 등장은 『금오신화』 이후로부터 『기재기이』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소설사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추측 차원에서만 제기되어 온 <홍길동전> 이전의 한글소설에 대한 존재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한글본 <설공찬전>은 한글로 수용된 최초의 소설로서 이후 등장하게 될 창작 한글소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설공찬전>의 필사 시기가 “17세기라는 추정”[48]에 대해 소인호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표기법은 필사시기에 관한 하나의 방증일 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공식 문건의 경우에는 표기법을 통한 시대 귀속이 가능할 것이지만,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기록에서는 동일시기의 서로 다른 기록이 표기법상 수 세기의 편차를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49] 또한 최초의 한글표기 소설로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기존에 통용되던 한글소설과 한문소설의 개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국문소설 여부에 관한 문제는 <설공찬전>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에서 일단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50]고 주장한다.

---

45) 이 주장은 조윤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4, 237쪽, 247쪽.)와 김태준(『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61쪽, 86쪽.) 이래 지금까지 국문학사와 고전소설사의 주된 경향이 되어오고 있다.

46)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창작된 한문소설과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엽의 <주생전〉, 〈운영전>, <강로전>등의 한글번역,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설소저전> 등이 한글소설로 한역된 사례가 있다.

47) 임형택, 「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양상」, 한국고전문학회・한국한문학회 공동주최 1998년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9쪽.

48) 이복규,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 도서출판 박이정, 1998, 26～27쪽.

49) 소인호, 「<설공찬전>의 재고」,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1998, 50쪽.

50) 앞의 글, 48쪽.

한글번역본 <설공찬이>의 발견은 다소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소설사의 위상 정립과 본격적인 논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글소설은 단순한 문자 표기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문학사에 있어서 뚜렷한 역사성을 지닌 가치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공찬이>는 원작의 성격과 구분지어 탐구되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전체적 사건진행을 제외하면, <설공찬전>과 <설공찬이>는 세부적 내용이나 진술 방식 그리고 번역과 유통 과정에서 상이한 여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공찬전>의 전반적인 작품 경향이 <설공찬이>와 부합될 수 있다는 유추만으로 한국문학사를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설공찬이>의 분석 결과를 <설공찬전>에 곧바로 대입하기보다는 문헌의 성격과 이본의 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소설사적 의의를 찾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홍길동전>이 여전히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당위성을 넘어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 바로 <설공찬전>이 갖는 소설적 성격과 문학사적 가치인식이다. '죽은 설공찬이 사촌 설공침의 몸속에 들어가 자신이 사는 저승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의 <설공찬전>은 작가의 의식이 개입된 독립된 작품으로 또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소설'임이 분명한 작품이다. 따라서 국문본 <설공찬전>이 학계에 대두되었을 때 최초 한글소설 논란은 당연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또 '최초'의 논란에 상관없이 <설공찬전>은 16세기 초 이미 한문소설이 곧바로 한글로 번역되어 읽혀졌다는 점에서 한글이 당시 대중에게 얼마나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는지, 그리고 '한글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도와 파급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설공찬전>의 창작 시기를 『중종실록』에서 거론된 1511년으로 추정했을 때, 한글이 창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글 번역본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대중들이 그만큼 '한글소설'에 갈증 나 있었고 <설공찬전>은 이를 반갑게 적셔주는 단비와 같았던 것이다. <설공찬전>은 이제 '한글'을 막 깨친 대중들에게서 '읽을 수 있다'는 희열감, '무언가를 읽고자 하는 욕망'들이 분출하는 시점에 저승과 귀신이라는 소재가 주는 '재미', 여기에 <설공찬전>의 작가가 의도적으로 내포한 '현실

비판이라는 쾌감',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묘사'와 쉽게 읽힌다는 '서사적 문체'가 접목되었을 것이니 '금서'로 지목되어서도 암암리에 꺼지지 않은 불길처럼 확산되어 유행됐던 국문본 <설공찬전>의 인기는 바로 이러한 이유를 근저에 깔고 있었음이었다.

국문본 <설공찬전>의 선례를 이어 국문본 <왕랑반혼전>, 권필의 <주생전> 국문본이 나오고 본격적인 의미의 국문소설 <홍길동전>, 작자미상의 <한강현전>, <소생전>의 작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쾌거는 전자의 <설공찬전>에서 보여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과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글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도가 결국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이끌어내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로 <설공찬전>은 한글이 갖는 문학적 기능성 중 여섯 번째의 '문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문학 주도층의 '한글'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역시 기여한 바 크다. 물론 '한문'이 특권층의 전유물이라면 '한글'은 '한문'을 모르는 서민층, 부녀자층에세 종속되는 글로 한글을 사용하는 층은 극히 소시민층으로 사실상 무시되었던 글자이다. 그러나 민중을 상대로 교화하거나 포교 등의 의도 목적이 있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했을 터이다. 여기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을 비롯, 집현전의 학사들을 중심으로 한글이 갖는 실용성과 대중성을 인식한 유학자들 사이에 의식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작품들이 바로 한글번역본과 불경언해의 작품들인 것이다.

제 4 장 불교적 변문들의 발전

제4장에서는 불교적 변문들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불교문헌의 소설적 성격과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의 소설화에 대해 집중 탐구할 것이다.

4.1 불교 변문의 소설적 성격

불교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종교이고,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허구의 산물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문학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문학이 언어 자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 또한 언어를 수단으로 자체의 목적을 이룩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언어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다르지만 목적 실현을 위한 매개체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종교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것이다. 종교문학의 갈래인 불교문학 역시 불교의 진리 포교를 대전제로 하여, 불교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문학은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안착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며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물로 불교문학은 구축된다. 불교문학 역시 언어를 매개로 상상력을 동원한 서사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교의 교리를 미화하고 설파하기 위해 한글 불서들은 또한 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창작된 불서들 중 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들이 대거 출현하기도 한다. 불교문헌과 소설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인 성인전(聖人傳)의 경우 경전과 함께 성인의 이야기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승려의 생애와 언행을 다룬 승전의 경우는 그 자체가 전기문학의 일종으로서

소설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목적을 달리할 뿐이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와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글소설보다 앞서 창작된 불교문학들은 문학적으로 무르익어 본격적인 한글소설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창작 영역을 확대하고 문학성을 심화하며 소설의 본격화를 앞당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공존해 왔다고 할 만큼 뿌리 깊은 불교사상과 불교정신으로 뭉친 불교문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거부감 없이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외양적 현실 생활과 내면적 정신세계를 지탱해 내는 지지기반으로 확고한 자리를 획득하게 된다. 종교적 성취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 구원의 수행적 삶은 불교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지향하는 세계 역시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작가가 작품 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리고 궁극에 가서 인간 구원을 염원할 때 문학의 포괄적 주제는 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와 동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불교가 추구하는 초월적 사유는 문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반영과 외형상 위상의 차이를 드러내지만 근본적 성향은 동일해짐을 알 수 있다.

불교문학은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미와 교훈을 위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허구적 산물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불교문학에서 설화는 자주 활용되는 매개체다.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화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불교 설화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쉽고 흥미 있는 비유와 인연설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가능하면 체험적으로 이해시키고 불교적인 삶과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가 담겨 있는 불교 경전은 철학적 사상과 논리를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한 종합예술인 것이다.

불교문헌과 소설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인 성인전은 경전과 함께 이야기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한글소설이 등장한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소설에 따라 형성된 독자의 관심과 기대에 맞도록 변문을 개조한 불교소설이 유

포”[51]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불경류의 언해는 한글의 보급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한글소설의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가져왔다. 불교문헌은 이야기 문화의 유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승전(僧傳)이 고소설의 생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 본보기임을 보여준다. 승려의 생애와 언행을 다룬 승전은 그 자체가 전기문학의 일종으로서 소설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선조에 들어와 불교문헌의 언해는 부처의 일생을 정리한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된 작품들이 당대의 사정에 맞추어 재구성되었다. 수양대군은 1447년에 『석보상절』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1449년에 세종이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만들었다. 1459년에 세조는 이 두 작품을 보완하여 『월인석보』을 찬술하여 석가에 대한 전기를 완성했다. 『월인석보』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통해 승전의 전통이 조선조에 어떤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월인석보』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삽입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품이다. “문학작품은 질과 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표면적 사실과 심층적 사실을 아울러 갖고 있게 마련”[52]이지만 한국의 종교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소설문학에 대한 영향은 향가나 설화가 차지하는 비중에 부족함이 없다. 소설발달사적 영역에서 볼 때, 불교문헌이 한국소설에 끼친 불교의 영향은 특정 작가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볼 때, 불교문헌은 그 성격과 기능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전의 불교문헌은 주로 불교적 교훈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은 승려의 초인간적 수행과 신통한 행적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에 나온 불교문헌의 내용은 역사적 기록이나 문학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성격은 사기열전류(史記列傳類)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 전기유형을 띠게 된다. 불교문헌의 내용은 소설의 문학적 기법을 원용함으로써 대중적 보급을

5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93쪽.
52) 황패강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4, 351쪽.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불교적 신앙을 강화하고 교리를 전파하는 목적에서 저술된 것이지만 소설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지대하다.

한국문학사에서 불교와 문학과의 관계는 여러 문학 양식을 통해 실현되었다. 향가, 한시, 가사, 설화, 소설, 희곡 등은 모든 문학양식에서 불교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적 서사전통은 한국 서사문학의 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삼국시대의 설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불교적 영향은 조선조의 소설문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소설은 그 문학적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고소설 작품은 서민의 통속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오락물에 머물지 않고 인생의 심오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품들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와의 교류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불교의 언해문헌은 한문학 전통을 한국 국문문학에 접맥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글불서가 간행된 이래 "간경불사(刊經佛事)에 대한 신앙이 더욱 두터워져 많은 불전이 출간"[53]되었다고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은 오로지 한문에만 의존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문은 국가의 공식문자로서 문자 생활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불교는 초창기부터 대중적 포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한글의 사용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수혜자의 혜택을 한국문학사에 가장 큰 보답으로 보전한 것은 불교계이다. 따라서 불교문헌의 보급과 발전 또한 자연적인 과정으로 이어진다. 『월인석보』는 국가의 사업으로 시도된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와 같은 불교문헌 작업은 적극적으로 완성된다. 『월인석보』 내에 있는 <안락국태자전>, <목련전> 등은 별개의 작품으로 전승되면서, 한글소설 생성의 계기를 만든다. 『권념요록』에 수록된 <왕랑반혼전>과 다른 작품들은 한문 원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다. 한문 자료와 한글 자료의 공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문헌은 중요한 문헌임과 동시에 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읽혀질 수 있는 작품의 역할을

53) 권기종, 「이조후기의 불전간행 경향」, 『불교학보』 제1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5, 15쪽.

수행한다. 불교문헌이 한문소설보다 한글소설과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된 것은 서민 독자들과의 언어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독자와 불교 신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같은 여성 계층이었음을 고려할 때, 불교문헌이 한글소설에 수용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불교문헌이 신화와 소설의 거리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설은 신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소설에 드러나는 신화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

4.2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의 소설화

훈민정음 창제 후 간행된 불경 언해문학들 중 소설의 구조를 갖춘 작품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는데, <설공찬전>에 이어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훈민정음에서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 사이의 공백기를 메워주는 주요한 작품들이다.

<안락국태자전>, <금우태자전>, <목련전>, <선우태자전>, <금광공주전(金光公主傳)>, <왕랑반혼전> 등이 그러한데 <왕랑반혼전>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실제로 후대 불교계 한글소설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한글소설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천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불교문학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 작품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 후대의 문학들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안락국태자전 → 안락국전
* 목련전 → 나복전
* 선우태자전 → 적성의전
* 금우태자전 → 금송아지전
* 금광공주전 → 박씨전[54]

이와 같은 불경 언해 사업은 조선조에 들어와 부처의 일생을 정리한 작업들로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된 작품들이 당대의 사정에 맞추어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47년 수양대군의 『석보상절』을 위시로, 1449년 세종이 스스로 만든 <월인천강지곡>을 거쳐 1459년 만들어진 『월인석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해 개고한 작품으로 불경 언해작품들 중 결정판이라 평가되는 작품이다. 특히 『월인석보』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삽입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승전의 전통이 조선조에 어떤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월인석보』 제8의 월인곡 기이백이십(其二百二十)에서 기이백오십(其二百五十)까지 총 31곡에 해당되는 상절부에 수록된 <안락국태자전>[55]은 원전은 불경의 목록에 없는 창작물로, 언급한 대로 내용과 형식의 전반부에서 소설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안락국태자전>을 맥락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앙부인의 서천국 사라수대왕 제1왕비로 등장
* 범마라국 광유성인이 대왕의 출가 요청
* 만삭의 몸인 부인은 대왕과 함께 출가의 길을 떠남
* 부인은 자현장자에게 종으로 팔림
* 장자의 박해를 받으면서 안락국을 낳음
* 안락국이 광유성인의 수하에서 수도하는 부왕을 왕생계로서 찾음
* 안락국과 부왕이 상봉하는 동안 부인은 장자의 칼에 죽음
* 안락국이 돌아와 시신을 모아 왕생극락을 비원(悲願)함
* 부인은 대왕과 안락국과 함께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함
* 불전의 결말 부분처럼 부언이 따름

54) 이들 작품의 상호 친연성에 대해서는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55) 현재까지 발견된 <안락국태자전>의 이본들은 모두 필사본으로 약 9종이 있는데 국립도서관정본을 비롯한 7개 본이 한글본이며, 연대미상의 마곡사본만이 한문본으로 전한다.

<안락국태자전>의 내용을 사건별로 요약해 보면 '왕비인 원앙부인의 임신→대왕과 부인의 출가 → 주인공 안락국을 낳기까지의 고난 → 안락국과 어머니 원앙부인의 고난 → 고난의 극복 → 대왕과의 상봉 → 원앙부인의 죽음 → 석가세존에 의해 불보살이 된다'는 구조이다.

<안락국태자전>은 불전설화의 기본 구조를 계승한 작품이지만 고소설과의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상관관계이다. <안락국태자전>은 크게 2가지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나가 '아버지 찾기'라는 모티프이고 나머지 하나가 '고난을 극복한 영웅 이야기'라는 소설구조와의 상관성이다. 이러한 모티프의 차용과 구조는 고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또 구조상 발단 → 비운 → 역경 → 절정 → 회운 → 행복한 결말은 "고소설 일반의 구성공식"[56]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작품의 구성 단계에서 가요를 알맞게 배치함으로써, 역동적인 효과를 살린 "시문학적 구실"[57]을 이끌어 내는데, 이는 구창형태로써 변문계(變文系) 작품의 실증을 나타내는 특징과 함께 고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루는 삽입가요의 수법과 동일하다.

내용상으로는 주제적인 측면이다. 부운 같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선심과 자비로 부처의 말씀을 따르면 생사고해를 넘어서 극락정토, 즉 안락국에 이르게 된다는 불교적 인생사상을 주제로 삼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권선징악'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모습에서도 고소설의 인물의 정형성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요 인물들로 광유성인, 사라수대왕, 원앙부인, 장자, 안락국을 들 수 있다. 이 중 광유성인은 대왕에게 출가를 요청하는 인물이다. 등장인물들 중 가장 존엄한 위치에서 사건 전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광유성인의 이러한 인물 성격은 불교계의 소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또는 주인공의 행동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인물들과 궤를 같이 한

56)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181쪽.
57) 사재동, 「월인석보의 형태적 연구」, 『어문연구』 제6집, 어문연구회, 1970, 46쪽.

다. 마치 <구운몽>의 육관대사와 일치하는 인물 유형의 설정이다. 사라수대왕은 소국을 정법(正法)으로 다스리며 408 부인에게 둘러싸여 부족함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물이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애써 불교의 교리를 수행하기 위해 고행을 마다 않는 전형적인 선인 구도자(善人 求道者)의 모습이다. 대왕의 이러한 모습은 고소설에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명문거족 출신이며 주인공의 아버지 모습이다.

주인공격인 안락국의 어머니 '원앙부인'은 왕비의 덕목을 고루 갖춘 여인으로서 남편을 위하여 만삭을 몸을 이끌고 고행을 같이 할 것을 자처하는 양처(良妻)요, 구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 그 몸값을 광유성인께 바치는 충직한 신자이며,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이며 끝없이 관용적인 인물이다. 원앙부인의 이러한 모습 역시 고소설에 등장하는 지고지순하며 끝없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여주인공의 전형에서 변함이 없다.

주인공인 안락국은 고귀한 혈통으로 탄생하나 고난을 겪고 결국 그 고난을 극복해 내는 인물로 고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장자는 주인공을 고난과 역경에 빠트리고 주인공과 대립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는 인물이나 결국 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고소설의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이와 같이 <안락국태자전>은 번역한 것이 아닌 일종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또 내용과 형식의 전반부에서 소설화의 모습이 역력한 점에서 고소설과의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설로 볼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창작 자체가 '불교 포교'를 전제로 한 목적 문학이라는 점, 그래서 등장인물 대다수가 불교 인물에서 차용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불교적 성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점이다. 불교설화는 불교의 교리를 포교하고 민중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태생 자체를 문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목적이 어떠하든지 <안락국태자전>에서

발견되는 소설적인 성격들은 본격적인 한글소설로의 진입을 이끌어낸 형성기 과정의 작품으로 가치를 확인케 한다.

<선우태자전>은 "기사백사십칠(其四百四十七)로부터 기사백구십사(其四百九十四)에 이르는 월인곡(月印曲)과 부합되는 상절부로서 『월인석보』 제이십이권 제이십이엽에 걸쳐 46장의 길이를 유지"[58]하고 있는 장편이다. <선우태자전>은 한역경전(漢譯經典)과 중국문헌, 그리고 한국문헌의 확실하면서도 복잡한 관련 법전들을 가지고 있는 저본설화(底本說話)가 불교설화의 여래전생역(如來前生譯)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서사문학적 감화력을 갖는 상황에서 널리 유전되고, 각 나라의 특성과 성향에 맞도록 변용되고 창작됨으로써, 각 나라의 문학으로 정착되고 전개되어 독자적인 서사문학과 소설작품으로 탄생된다. <선우태자전>은 석가여래의 위대성과 불교의 진리를 효율적이고 확고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불전에 속하는 포교문학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에서 살펴볼 때 장엄한 서사문학에 속한다. 다시 말해 석가여래와 그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감명 깊고 절실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전개시키는 소설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본설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중국의 서사문학이나 한국의 한문소설로 창작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자를 변형하여 한글화하는 작업은 하나의 창작활동이다. 더욱이 작품 구조를 살펴보면 '영웅의 일생'으로서 고소설의 전기적 유형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파라날국왕과 제1부인이 소원하여 선우태자를 낳음
* 제2부인이 악우를 낳음
* 선우태자가 민중의 생활고를 부왕에게 알리어 재산과 보물을 보시함
* 선우태자는 국고가 비어 보시를 중단함
* 용왕의 마니보주를 얻기 위해 바다로 떠남
* 선우태자는 도사의 지시를 따라 용왕에게 보주를 얻게 됨

58) 김영배, 「월인석보 제이십이권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8집, 동국대학교, 1985.

* 선우태자는 도중에 악우를 만나 보물을 맡김
* 악우는 잠을 자는 선우태자의 눈을 찌르고 보주를 빼앗음
* 선우태자는 고통과 허기로 방황하다가 이사발국에 들어가 걸인으로 행세함
* 선우태자는 이사발국 왕녀를 만나 국왕의 천대에도 부부가 됨
* 선우태자는 눈을 뜨게 되고 파라날국의 태자로 밝혀짐
* 선우태자는 국보, 부마로 대접 받고, 태자로서 환국함
* 선우태자는 옥에 갇힌 악우를 달래어 보주를 찾고 부모의 눈을 뜨게 함
* 선우태자는 보주의 영험을 얻어 일체중생의 태평극락을 누리게 함
* 불전의 결론 부분과 같이 부언이 따름

<선우태자전>은 순수한 서사구조를 불교라는 액자 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러나 작품 자체는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허구 소설의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 불교와 어떤 관련을 가진 것인지 모른 상태에서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파라밀행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불교 이상만이 강조되어 작품이 갖는 소설적 특징이 협소화될 수 있지만, 창조적 변용의 일관된 창의성을 지닌 <선우태자전>은 불교소설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을 위한 삶의 철학이 정신적 원리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불교의 이상은 신화적 측면에서 빠져나와 인류의 소망과 부합되어 간다. 작품의 보편적인 주제와 동화적이면서 불교적 주제를 결부시키면 두 양식은 조화를 이루어 불교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적 창작성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내재된 소설적 요소에서, <선우태자전>은 형성기 한글소설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통속적 중생의 마음을 불교화하는 과정에서, 불경의 직선적인 언해를 넘어 한국적으로 변용 창작된 <선우태자전>은 독창적인 한국의 소설문학의 획을 이루고 있다.

<금우태자전>은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 제7지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 대한 많은 한글 이본은 각기 친연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본들은 초기

한글본에 대한 작품의 성향을 제시한다.『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간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작품들의 한글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이에 대한 증거는 <금우태자전>에서 확연하게 찾을 수 있다. <금우태자전>은 경보(經譜)에서 저본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보다 한국계 변문에서 연원을 찾는 노력이 효과적이다. 석가여래의 본생에 대한 이야기는 변문적 형태를 가진『석가여래십지수행기』로부터 <금우태자전>에 이르러 한국적 변용화 현상이 더욱 확연해진다. 십이부(十二部) 본생 중에서 축생역에 근원을 두면서 한국적으로 재창조된 것이다. 작품의 전개는 남녀 주인공이 고려국과 그 주변국에서 활동하도록 안배된다. 고려국을 중심으로 불법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적 이념의 창조와 설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중포교의 불교계 서사문학 속에서, 낭만적인 내용으로 전형적인 한글소설의 형성기 작품을 대표한다. 다음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확신은 배가된다.

* 파리(波利)국왕의 제3보만부인이 태자를 낳음
* 제1, 2 부인이 산파를 시켜 태자를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음
* 보만부인은 양부인의 모함으로 방앗간에서 맷돌질하는 형벌을 받음
* 암소에게서 금송아지가 태어나 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장군이 됨
* 금송아지가 보만 부인을 찾아가 아들임을 말하고 위로하며 도움
* 양부인은 금송아지의 간을 약으로 바치게 함
* 금송아지는 죽음 직전 백정의 도움으로 풀려나 동쪽으로 떠남
* 금송아지는 노인을 만나 고려국으로 인도되어 공주와 인연을 맺음
* 금송아지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공주와 고려국으로 쫓겨남
* 금송아지는 방황하다가 선인의 선도를 얻어 태자로 되돌아와 국왕이 됨
* 국왕은 파리국의 부왕을 찾아가 보만부인을 구출하고 눈을 뜨게 함
* 국왕은 두 부인을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극락을 누림

여래의 전생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금우태자전>은 불교적 설파의 유형으

로만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여래가 인간에게 제시한 지고지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영웅으로 보편화될 때 불교적 색채의 일반적 관점은 퇴색되고 소설로서의 승화가 가능해진다. 권선징악을 자연스러운 전개로서 표출하고 고진감래의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고소설로의 특질은 생성된다. <금우태자전>에서 불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만큼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면서 불교소설의 특징은 두드러진다. 금우태자를 통해 여래의 모든 것을 구상화함으로써 작품의 전반에 불교사상은 복합적으로 융해되어 전달될 수 있다. 대립 관계를 넘어 앞으로 진행될 사건의 근본적 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소설의 특질을 갖는 것과 동시에, 대립적 상황이 더 크고 깊어 신비감과 장엄함이 극대화되는 한글소설의 형성기의 특질이 공유한다. 무명노인과 선인을 등장시켜 금우태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고소설의 일반성을 보여준다. 제 1, 2 부인의 행위가 악독한 것으로 특징되어 보다 개성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 또한 고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 특질이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는 <금우태자전>이 한글로 작품화됨으로써 형성기 한글소설의 구실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은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과 더불어 벌이는 사건에 전형화되는 운명의 요체이다. 주인공의 운명은 전 인생에 걸쳐 예정된 수순으로 전개된다. 출생과 고행, 그리고 출세와 회귀를 거치는 완벽한 전기의 성격을 갖춘다.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은 이러한 전기의 전형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그러니 이들 작품에서 제시되는 전기적 요소는 역사적 사건의 전기가 아니라 허구적 삶의 전기이다. 주인공들의 성취는 모든 타인의 영광으로 승화되고 이상실현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전개의 결말은 세 작품들에서 전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고소설의 사건진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고소설의 문장들이 대부분 한자숙어나 고사성어 등을 사용하는 점에 비하여, 비록 문장의 기교적인 면에서 미숙하지만 작품들은 한글 중심의 문체로 정착하고 있다. 대화형식이 고소설보다 더욱 발달되어 자연스러운 담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한층 성숙된 구어체의 문체가 작품 속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결국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에서 소설 수준의 전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한글소설의 형성기반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묵과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가 '한글 사용'에 대한 민중의 적극적인 의식이고 이로 인해 번역문학과 언해 문학에 대한 민중의 수요도는 한층 고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한글에 대한 수요도가 번역문학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번역과 언해 문학이 본격적인 '한글소설'에 이바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글'에 대한 민중의 적극적인 의식으로 탄생한 불교 문학류는 '한글'이 갖는 문학적 기능으로 제시했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제로 구축하고 실현한 예이기도 하다.

제 5 장 <홍길동전>의 출현

본 장에서는 <홍길동전>의 출현에 대한 전반적인 면모를 고찰함으로써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이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역할과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5.1 한글본 <홍길동전>의 가치

한글본 <홍길동전>은 영웅의 행적이라는 서사 전통이 최초로 소설화된 작품이다. 또 조선 전기의 사대부문학으로부터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으로 전환하는 전초적인 작품으로서 한글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인 것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언급한 것은 동시대의 이식(李植)에 의해서이다. 이식은 허균이 반역을 꾀하는 무리와 함께 <수호전(水滸傳)>을 애독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서로의 별명으로 부르고 "<홍길동전>을 지어 <수호전>과 견주었다"[59]고 전한다. 허균은 <서유록발(西遊錄跋)>에서 중국소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표출한다. "내가 희가의 글 수십 종을 얻었는데, 삼국과 수당의 것을 제외하면 양한은 말이 잘 맞지 않으며, 제와 위는 졸하고 오대와 잔당은 추졸하며 북송은 소략하고 <수호지>는 간사하고 기지가 뛰어나다."[60]

허균은 조선 문예의 태동기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시(詩) 창작에 있어서, 옛것의 문구를 답습하는 폐풍을 제거하고 새로운 논리를 시와 소설 분야에 설파한다. 가전(假傳)·전기(傳奇)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지만, <홍길동전>은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어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사회소설의 선구적 작품이자 내용상으로 저항정신이 반영된 평민문학이다. 온갖 포학과 천대를 가하는 양반정치에

59) 筠又作洪吉東傳 以水滸 『택당집』(별집 권 15), 잡저.
60) 余得戱家說數十種 除三國隨唐外 兩漢齬 齊魏拙 五代殘唐率 北宋略 滸(水滸)則 姦騙機巧. (『惺所覆瓿藁』<西誘錄跋>)

대항하는 홍길동의 성격 묘사가 작품의 전반에 걸쳐 모순 없이 완전하게 표출된다. 이와 같이 장회소설(章回小說)의 시조가 된 <홍길동전>은 조선소설사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에 대한 언급은 이식 외에 다른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홍길동전>이 <수호전>의 모방 작품이라는 증거로 이용되고, 허균이 이 작품에 대한 작가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시할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허균의 사상적 행보와 그의 인생 과정을 살펴보면 <홍길동전>과 많은 유사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조 연산군 시대의 1500년 경, 홍길동은 실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반란의 사건이 빈번한 시기였다. 허균은 이러한 상황의 관심을 <호민론(豪民論)>에 나타냄으로써 민란의 원인과 그 경과를 기록한다. 그는 작품 속에 백성에는 항민(恒民), 원민(怨民), 그리고 호민(豪民)이 있으며, 호민이 거사에 가담하면 원민은 물론 항민까지 가담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고른 인재의 등용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는 처형당한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누구도 서얼의 차별대우에 앞장서 거사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홍길동전>이 소설의 기본 양식을 갖고 있지만, 한문소설로서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비평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최초의 한글소설로서의 가치 부여는 "광해군에 이르러 허균(1569~1618)의 홍길동전이 나와, 이것이 조선말로 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한다."[61]는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소설사적 의의에서 볼 때, 조윤제의 평가-"조선소설은 여기 <홍길동전>에 와서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홍길동전은 또한 조선소설문학의 획기적인 작품임을 의심할 수 없다."[62]-는 한글본 <홍길동전>의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어 오늘에 이른 것"[63]만으로 <홍길동전>이 평가된

61)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131쪽.
62)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247~249쪽
63)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3, 171쪽.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홍길동전>은 한글본만이 전해지고, 후대에 이루어진 사본이나 판본뿐이다. 한문으로 쓰여진 전(傳)은 일사소설(逸事小說)은 한문 자체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독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만은 토로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한글을 채택했으며 영웅적인 주인공의 행동이 투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후대적인 개작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홍길동전>은 "영웅소설이면서 고아소설이고, 도술소설이면서 사회소설"[64]이다. 영웅의 설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화문학의 전통과 접맥되어 있는 작품이다. 또한 불교소설이 생활에서의 고난을 초경험적 전제에 따라 제시해야하는 구성상 귀족적인 주인공이 무력함을 보이는데 반하여, <홍길동전>은 지배체제에 반감을 가지는 하층에서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소설이 현세의 좌절과 시련을 겪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이원적 소설의 극단을 보이지만, <홍길동전>은 도술을 개입시켜 작품이 전개될지라도 일원적 소설로 그 위치를 획득한다.

한문학에서 채택한 '전'의 이름을 차용하여 작품의 격식을 마련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한글소설로서의 가치 폄하에 대한 일각에 불과하다. 주몽이나 탈해를 주인공으로 한 고대의 신화에서부터 서가무가로 이어지는 전통적 맥락에서, <홍길동전>은 신화적인 능력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세계와의 대결에서 도술만으로 모든 상황을 일거에 제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의 도입은 위대한 주인공이 왜소한 인물로 특징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신화적 질서의 표출이 아닌 소설적 진실성의 추구 과정으로서 <홍길동전>의 가치를 드높인다.

<홍길동전>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서사적인 구조를 창조해야 하는 구성 조건의 틀에 짜 맞추어 놓여 있지 않다. 허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건의 전개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창작의 과정에 더욱 충실하다. '전'의 특징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되지 못한 교술적 측면을 드러내지만, 한문소설이 청산하지 못한 사실 전달의 교술성은 <홍

6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86쪽.

길동전>에 이르러, 유교 교훈을 내세우는 표면적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교훈성과 교훈의 교술성은 작품 속에 용해되어 각각의 구실이 교차된다.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서사무가로 이어지는 전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국 소설이 갖는 특유의 일대기 형식의 모형을 마련한다. <홍길동전> 이후, <전우치전(田禹治傳)>, <최고운전(崔孤雲傳)>, <임진록(壬辰錄)>, <임경업전(林慶業傳)> 등의 영웅소설은 서가무가로 전승된 영웅서사시의 변형된 작품으로 창작된다. 서사시와 소설이 이와 같이 분명한 계보를 이루어 연결된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홍길동전>에서 시작된 영웅소설의 한국소설사 주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류를 이루어 풍부한 작품의 창작을 가져온다.

5.2 본격적 한글소설로서의 위상 정립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소설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학자들 사이에서 한문소설로서의 가능성을 여전히 떨쳐내기 어려운 미묘한 위치에 놓인 작품이다.

전자에 언급했듯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소설로서 가치가 부여된 것은 "광해군에 이르러 허균(1569~1618)의 홍길동전이 나와, 이것이 조선말로 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한다."[65]는 평가에서부터이다. 이후 <홍길동전>이 소설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아직까지 두 가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최초의 한글소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과 둘째, '원전 논란에 따른 것으로 원본 역시 한글이었을까?'라는 한글소설 회의론이다.

첫째의 문제점에서 반론의 대표 주자로 사재동[66], 황패강[67], 이복규[68] 교수 등을

65)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131쪽.
66)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 사재동 교수는 다양한 논문과 저서들을 통해 <홍길동전>의 최초 한글소설론을 엎고 불교계 소설

들 수 있다. 사재동은 세종, 성종 때에 언해된 불교 산문문학을 집중 분석하면서『월인석보』에 실린 <안락국태자전>, <목련전>, <선우태자전>을 <홍길동전> 이전의 작품들로서 '형성기 국문소설'로 주장한 바 있다. 황패강 역시 16세기에 보우가 한글로 번역한 <왕랑반혼전>의 소설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최고(最古) 국문소설'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현저히 소설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목적 자체가 불교문학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한글소설로 용인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이 학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복규는『묵재일기』에서 <설공찬전>과 같이 발견된 필사본 <왕시봉전>을 최초의 창작 국문소설로 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홍길동전>을 '한문소설'로 전제로 시작하고 있다. <왕시봉전>을 최초의 한글소설로 주장하는 데는 작품의 말미에 "죵셔 을튝 계츄 념팔일 진시"라 적힌 후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을축년 9월28일 오전 7시~9시경 쓰기를 마쳤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을축년"인데, <왕시봉전>필사본의 음운론적 특성[69]을 분석해 볼 때 1685년의 을축년을 필사연도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후기에 쓰인 '죵셔'(終書)라는 말이 짓기를 완료했다는 말인지, 베끼기를 완료했다는 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홍길동전>이 '한문소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마찬가지로 <왕시봉전> 역시 순수 창작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 설 역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홍길동전>이 한글소설인가라는 의문은 한국 국문학 초기에서부터 있어

들을 '한글소설'이라고 하였다.

67) 황패강,「나암보우와 왕랑반혼전」,『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68) 이복규,「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56, 1998.
이복규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최초의 한글소설을 <왕시봉전>이라 주장한 바 있다.

69) 이는 음운론적 특징 중 '구개음화'의 사용 시기에 착안한 것이다. <왕시봉전>에서 발견되는 '구개음화' 현상은 그 시작을 15세기 말까지로 소급하며, 17세기 후반 다양화해지다, 18세기 중반에 완성됐다는 이명규,「구개음화」,『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을 참조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복규는 <왕시봉전>의 어휘를 분석하고 구개음화를 가진 총 어휘 개수가 83건이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7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구개음화 이전의 표기와 이후의 표기가 혼재된 시기의 작품으로 1685년 을축년의 작품이라는 학설을 제기했다.

왔다.[70] 이러한 주장의 근간은 우선 현존하는 <홍길동전>에 원본 논란에서 시작한다. 현재 '홍길동전'이란 표제를 달고 있는 작품으로는 목판본으로 판각된 여섯 종류의 이본, 필사본으로 다섯 종류의 이본이 존재한다. 이들 이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지만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이본 중 어느 것이 '원본'인지, 나아가서는 '원본'이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시원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홍길동전>은 '한문소설', '한글소설' 논란은 명확한 논의를 벌이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그러나 자료가 입증하듯 현존하는 자료 모두가 한글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원본이 한문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홍길동전>은 한국의 소설사에서 여전히 최초라는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5.3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 역할로서의 위상

고소설의 대부분은 소재와 인물, 배경 등을 중국에서 취하였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한국을 무대로 삼고 있으며, 한글로 표기하여 서민들에게까지 독자층을 확대시킨 점에서, 한글소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한국소설사의 진정한 시작이다. 전기적(傳奇的)인 요소의 잔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가 등장하고, 당시의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소설다운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본 <홍길동전>은 창작 이후, 한국 전국에 걸쳐 많은 독자로부터 읽혀지고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소설이며, 영웅설화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어 설화문학의 전통과 접맥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부조리를 혁신하려는 정신 구현과 조선 전기의 사대부문학으로부터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으로 전환하는

70) 고정옥, 『국어국문학요강』, 대학출판사, 1949, 405쪽. - 고정옥은 <홍길동전>이 국문본인지 한문본인지 의문이라며 첫 국문소설로서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설을 주장했다.

전초적 작품으로서 <홍길동전>은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 역할로서 반석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작품이다.

<홍길동전>은 또 전기적(傳奇的) 요소의 특징이 강하지만 사실성이 크게 부각된 작품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 이후 팽배한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진 정치 및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한 허균은 '홍길동'의 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회 질서를 민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로 작품을 쓴다. 허균은 일반 대중에게 적서 차별의 철폐와 인간 평등사상 등 봉건적 사회 제도의 개혁을 주창하고, 지배 계급에 대한 서민의 반항을 합리화하며, 유교적 출세주의의 지양을 드러냄으로써 서자의 점진적 신분 상승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진출과 이상국 건설을 주장한다. 설화에서 진일보한 창작 소설로서 <홍길동전>은 저항정신이 반영된 평민문학의 주축이 된다. 설화 → 패관문학, 가전체 → 판소리계 소설 → 고소설의 과정을 거쳐, 전기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게 된 <홍길동전>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등의 창작을 가능하게 한 작품의 본보기가 된다. 또한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이상향의 지향은 박지원(朴趾源)의 <허생전(許生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홍길동전>에 대한 많은 연구[71]에서 이 작품은 중국소설에서 많은 영향을 입어 구성되었고, 그 결과 작품의 창작자와 그 연대가 정확한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점을 한국 국문학의 의의에 두고 있다. 허균이 그의 기록에서 <서유기(西遊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수호전(水滸傳)> 등의 많은 소설류를 언급하고 있는

71) <홍길동전>에 관한 연구는 정주동, 『홍길동전연구』(문호사, 1961) 이래로 활기를 띄고 이루어진다. 정규복의 『홍길동전연구사』, 『낙은 강전섭선생 회갑기념 논총』(창학사, 1992)에서 연구사를 정리하고, 신동욱 편,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새문사, 1981)에서 그 성과를 개관하고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황패강 · 정진형, 『홍길동전』(시인사, 1984)에서는 완판본을 주해하고 연구사를 고찰한다. 이문규, 『허균산문문학연구』(삼지원, 1986)에서는 허균이 남긴 여러 형태의 산문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 <홍길동전>한문본은 이종주, 『한문본 홍길동전 연구』, 『국어국문학』99(국어국문학회, 1988)에서 소개하고 고찰했으며, 작품은 『서강어문』6(서강어문학회, 1988)에 수록되어 있다. 정규복의 『한국고전문학의 원전비 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에서<홍길동전>이본이 고찰되는 등 이외의 많은 연구에서<홍길동전>은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다.

것으로도 허균의 중국 소설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그 소재들을 몇 군데에서 차용하여 구성하였지만, 완벽한 창작 구성 소설이다. 소설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홍길동전>은 조선조 소설이 대부분이 체제옹호적인 보수적 주제를 지니지만, 이 작품은 적서 차별과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아가 국가 자체에 대한 비판 등 체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란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소설을 구성하면서 이미 중국 소설에 나타나 있는 소재를 빌려온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소설이 발전 과정상 중국 소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호 관련성을 비교, 고찰하는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서사적 유형구조를 처음으로 소설화한 한글소설로서의 참모습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홍길동전> 이후, 한국의 소설사는 한동안 영웅소설이 유행한다. 서사시와 소설이 분명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신화적 질서가 아닌 소설적 진실성을 추구한다. <장생전>에서 도적의 무리가 왕궁의 들보 위에 본거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긴장감이 없으나, 홍길동은 반역을 하고 투쟁하지만 아버지와 임금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구성은 "의식이 미흡한 광범위한 독자에게 오히려 친근감"[72]을 줄 수 있다. 흥미 본위의 한글소설을 원하는 독자의 취향에 의해 작품이 개작되는 과정에서 '전우치'가 도술을 터득하는 과정을 첨가하기 위해 괴이한 상상을 더한 이본들이 나타나지만, <전우치전>은 구성과 내용 그리고 주제적 측면에서 <홍길동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홍길동전> 이래의 영웅소설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임진록>이 나타난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영웅들이 등장한다. 병자호란을 소재로 택한 <임경업전>과 <박씨전>은 연대기적 특질을 보이는 <임진록>과 같은 연대기소설이 아니라 일대기소설로 되돌아간다.

<홍길동전>이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 확립을 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

7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5, 97쪽.

사 속의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가 담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처하는 인물의 성향 또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저항하는 대신에 순종과 타협을 택한 인물들에게 어떤 감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폐쇄된 학문이나 빛바랜 진리를 위하여 생애를 맡긴 한국의 선비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 오늘의 사람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깊이 있게 줄 수도 없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한국인의 숨결이며 맥박이다. <홍길동전>이 갖는 한국소설사의 기여 또한, 설화에서 출발한 한국의 고소설사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쌓여 온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사상을 수용하여 여과시켜 재창조한 노력의 산물이다. "최초의 국문소설은 한문소설을 발판으로 하여 이를 정음으로 번역함으로써 성립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 사례로, 중종 때 <설공찬전>을 들 수 있다"[73]는 사례와 "<홍길동전>의 최초 국문소설설이 무너지고 있다"[74]는 주장이 있지만, 민중을 역사 속으로 끌어안으며 시대적 함의를 가진 <홍길동전>은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제시하는 작품이다.

한글소설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 작품의 선택을 확정하기 위해서 최초의 한글소설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지대하다. 형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측면에서, 한글본 <설공찬전>이 <홍길동전>의 창작 시기의 17세기 초보다 약 1세기를 앞선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형성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한문소설이 곧바로 한글소설로 번역되어 읽혀질 만큼 소설의 독자층을 넓게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도 한글본 <설공찬전>의 소설사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한문학으로 출발한 한국의 소설사가 한글문학으로 확대되는 구체적 양상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출현 이후, 18세기와 19세기의 한글소설의 융성은 소설사적 흐름에서 한글소설의 발전에 대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한글소설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한글 표기의 의미가 아니라

---

73) 황패강, 「한국 고소설의 표기 문제」, 한국고소설학회·동방문학비교학회 · 한국중국소설학회 1998 동계학술대회 발표요지,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 1998.2.10, 7쪽.

74) 황패강, 「21세기와 고전문학」,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국어국문학·철학·심리학-, 한국학술단체연합회, 1999, 64쪽.

표기 이상의 함의를 내포한다. <홍길동전> 이후, 한국의 소설사는 서사시와 소설이 분명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신화적 질서가 아닌 소설적 진실성을 추구한다. 또한 사실성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허구를 통해 사건의 흥미를 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본격적인 한글소설로서 <홍길동전>은 표면적인 주제까지도 서사문학으로의 전개 속에 용해시킴으로써 한글소설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게 된다.

제 6 장 결 론

본고는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최초의 한글소설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서사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한국소설사를 논할 때 한문소설과 대별되는 한글소설의 위치가 중요할 뿐 아니라 올바른 한국문학사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창작 당시 원작이 '한글'로 표기돼야 하고, 순수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두 전제조건을 필수조건으로 한 '한글소설'의 정의와 범주에서 최초의 한글소설 논란의 중심부에 <설공찬전>과 <안락국태자전> 등의 불교문학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글본 <설공찬전>은 한국문학사에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부각된 화두적인 작품이자 문학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료였다. 소설사적 가치가 그러했고, 한문학으로 출발한 한국의 소설을 한글로 번역하여 삽시간에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소설이라는 문학을 실제로 대중화하는 데 한글이 얼마나 주요한 매개체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공찬전>은 본격적인 한글문학을 이끌어낸 귀한 자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문학은 또 한글에 대한 민중의 수요가 확산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수혜주였다. 비록 포교라는 목적문학이기는 하지만 독자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적인 민중이라는 점, 그리고 비로소 '볼 줄 아는 눈'을 갖춘 민중들의 '읽을 거리'로 등장하면서 불교문학은 시간을 더할수록 정제되고 소설적인 구성을 체계화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불교문학은 '소설'로서의 자리를 굳히며 역시 본격적인 한글소설의 진출을 끌어내는 주요한 구실을 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이 탄생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 <홍길동전>이 안고 있는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본고는 본 논문을 통해 <홍길동전>이 최초 한글소설이라는 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념할 사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홍길동전>까지의 170년의 공백이 무중력한 진공상태의 공백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난데없이 소설로서 완벽한, 그리고 작품성에서도 탁월한 <홍길동전>이 부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70년 동안의 공백기는 기실 완전 진공상태의 공백기가 아님을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었다. 명명상 공백기일 뿐 이 시기 한국문학사 전반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으로서의 서사문학의 가치 인식, 제반 여건을 통해 숙성해 온 문학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사상과 행동을 보다 자유스럽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기수단이라는 3박자가 합일되는 과정이 바로 이 170년의 사이를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난 작품들이 <설공찬전>, <안락국태자전> 등의 작품인 것이다.

실제로 민중들은 '불경 언해류'와 <설공찬전>이 주는 '소설적 재미' 그리고 '쉬운 문체' 등으로 말미암아 대중이라는 '독자층'을 형성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글본 '소설'에 대한 대중적 욕구의 상승, 독자층의 확산, 그리고 그에 부응하려는 소설적인 완성도는 결국 본격적인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이끌어 낸 것이다. 여기에 '한글'이 갖는 실용성과 대중성을 인식한 유학자들 사이 의식의 변화가 역시 본격적인 한글소설을 이끌어 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은 개혁의 몸짓과 이데아 추구라는 인간의 염원이 농축된 불세출의 걸작 <홍길동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발판 문학으로 한국소설사를 진일보시키는 주요한 성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소설사를 진일보시키는 데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표기체계를 통한 문학적 기능이라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음은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한글소설의 계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를 기점으로 불경언해와 <설공찬전> 등에서 발견되는 '소설'과 '한글'이 주는 독특한 매력, 여기에 사대부들의 점층적인 의식 변화들이 자리를 잡은 16세기를 지나 완성도 높은 본격적인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잉태한 계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은 이와 같이 한글 창제인 15세기를 지나 16세기

난숙기를 발판삼고 17세기 형성된 불세출의 걸작으로, 개혁의 몸짓과 이데아 추구라는 인간의 염원을 담고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Ⅰ. 학술지 논문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전자불전 -한글대장경의 성립과전개-』제4집,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2.

김영배, 「월인석보 제이십이권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8집, 동국대학교, 1985.

김완진,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김정주, 「홍길동전에 나타난 Novel과 Romance의 특성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5집, 1983.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간행」, 『부대사학』 제이십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6.

사재동, 「월인석보의 형태적 연구」, 『어문연구』 제6집, 어문연구회, 1970.

성기옥, 「용비어천가의 문학적 성격」, 『진단학보』 68, 진단학회, 1989.

소인호,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 37,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오춘택, 「조선전기의 소설의식」, 『어문논집』 23, 고려대학교 출판부,1982.

이문규, 「국문소설에 대한 유학자의 비판의식」, 『학국학보』 31, 일지사, 1983.

이복규, 「최초의 국문소설은 무엇인가」,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 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어문논총』 1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Ⅱ. 학위논문

김선희,「홍길동전 연구 -작품의 창작동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은연,「홍길동전의 허구적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재인,「허균소설의 전기성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이필귀,「<홍길동전>에 나타난 허균의 사상」,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채기원,「안락국태자전연구 -<월인석보>소재원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최만호,「홍길동전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Ⅲ. 단행본

고정옥,『국어국문학요강』, 대학출판사, 1949.

김동욱,『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_____ ,『국문학사』, 일신사, 1976.

김수중,『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창현,『한국적 장르론과 장르보편성』, 지식산업사, 2006.

김태준,『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불교사상과 한국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사재동,『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_____ ,『한국고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3.

_____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_____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소인호,『고소설의 전개와 서사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소재영,『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신병주・노대환 지음,『고전소설 속 역사 여행』(개정증보판), 돌베개, 2005.
우쾌제 외,『고소설연구사』, 도서출판 월인, 2002.
이가원,『조선문학사』(상책), 태학사 , 1995.
이명선,『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이복규,『설공찬전』, 시인사, 1997.
_____ ,『초기 국문·국문본 소설』, 도서출판 박이정, 1998.
_____ ,『설공찬전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3.
이수형,『한국 고전문학의 분석과 감상』, 송정문화사, 2005.
장덕순,『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_____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박이정, 1995.
장효현,『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정경섭 엮음,『고전 문학의 이해와 감상』, (주)문원각.
정규복,『한국고소설사의 연구』,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1992.
정주동,『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조동일,『한국문학통사』(제4판), 지식산업사, 2006.
조동일 외,『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4.
조희웅,『이야기문학 모꼬지』, 도서출판 박이정, 1995.
최운식 외,『한국의 영원한 고전: 설화, 가전체, 한문소설, 한글소설』, 글벗사, 1993.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교재편찬위원회,『한국고전문학의 이해』,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5.
한국 고전소설 편찬위원회 편,『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2005.
한국문학편찬위원회 편,『(개정판)한국문학개설』, 형설출판사, 1994.
한국문학개론 편찬위원회 편,『한국문학개론』, 혜진서관, 2001.
황패강,『한국서사문학사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_____ ,『조선왕조소설연구』,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1978.
_____ ,『한국문학의 이해』, 새문사, 199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	학 번	2006770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류함함 한문 : 劉 涵 涵 영문 : Liu HanHan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연락처	E-MAIL : hami83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Origin Process of Hangeul Nove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7 년 12 월 10 일

저작자: 류함함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